

# 음악자료의 접근점 제어 및 확장에 관한 연구\*

## Control and Expansion of Access Points for Music Materials

정유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yj0116@hanmail.net

Yu-Jin Chung, Dept. of Lib. & Info. Sci.,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최석두,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sdchoi@ewha.ac.kr

Suk-Doo Choi, Ewha Womans University

기존의 목록체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음악자료의 접근점을 중심으로 검색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부분문자열, 번역곡명, 별칭곡명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키워드 색인방법의 개선과 전거제어로, 그리고 연주수단, 인명정보, 연주장소, 수상내역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주기사항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가사의 문제는 키워드추출 및 구절단위의 색인기법을 통한 쉐어데이터 검색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1 서론

도서관에서 음악자료를 검색할 때 이용자들은 주로 서명에 해당되는 곡명 혹은 곡명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곡명과 관련된 정보만을 검색요소로 검색하는 경우, 곡명이 언어적으로 다양하고, 키워드의 색인이 불완전하다. 또한 키워드 중의 숫자와 약어의 의미가 모호하여 검색의 정확률이 낮다. 따라서 음악자료의 검색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어의 언어적 문제는 물론 하나의 곡명에 대한 별칭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곡명 이외의 다양한 접근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목록체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접근요소를 중심으로 현재 음악자료 접근의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질 높은 음악자료의 검색결과를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클래식 음악자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클래식 음악자료에 한정하며, 형태적으로는 악보와 녹음자료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참조자료로 사용된 검색실험을 위해서는 국내 대학도서관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음악자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세 곳의 온라인목록시스템을 이용하였다.

### 2 음악자료의 특징

음악자료 검색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음악자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자료의 표제에 해당하는 곡명에는 숫자와 알파벳 약어(예: op.90)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영어, 유럽어 등 외국어가 우리말과 혼재된 경우가 많다.

둘째, 한 작품의 표제가 여러 개 언어가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기도 하고, 동일한 언어로 구성된 표제인

\* 이 논문은 2002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경우에도 생산기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행본에 비해 기술사항이 복잡하고, 보다 많은 접근점이 필요하다(김남석, 조도희 2000, 71).

셋째, 작곡자, 연주자, 작사자, 편곡자 등 저작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많고 다양하며, 저자명에 해당되는 사항이 곡명의 일부가 되는 경우도 많다(Redfern 1978 ; Smiraglia 1989).

넷째, 음악작품에 대한 서지사항에는 여러 가지 기호가 많이 포함된다. 음표, 악상기호, 악기를 나타내는 기호 등은 상징하는 의미에 따라 색인어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음악이 갖는 기호적 특성을 색인어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검색에 있어서 많은 제한점이 따른다.

### 3 음악자료의 접근요소

#### 3.1 표제

##### 1) 부분 문자열

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이용자가 언제나 완전한 표제를 검색어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음악자료 중 곡명이 악곡형식으로 된 표제는 연주방법, 일련번호, 조성, 작품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요소는 각각 독립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순서를 혼동할 수 있고, 구성요소 모두를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형식표제든, 고유표제든 간에 이용자가 표제어의 한 부분만을 기억했을 때, 그 문자열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용자가 『브람스의 교향곡 제 3번 바장조 작품

번호 90』(Symphony no. 3 in F major, op. 90 /Brahms)을 찾는다면, ‘브람스(brahms)’, ‘교향곡(symphony)’, ‘3번(no. 3)’, ‘바장조(F major)’, ‘작품 90(op. 90)’ 등 각 요소별로 조합하여 검색을 시도할 수 있다.

표 1은 음악도서관에서 표제의 부분 요소별로 검색한 결과이다. 좀 더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기 위해 작곡가명은 기본 검색어로 두고, 표제의 부분 문자열별로 검색을 하였다.

표 1의 검색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정확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검색어에 사용된 곡명의 부분 문자열 중 연주방법을 제외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알파벳 약어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음악자료에 있어서 이 알파벳 약어와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중 하나라도 제외되거나 한다면 전혀 다른 곡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①의 검색결과 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오류로 인해 정확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예 1을 보면, ‘symphony’, ‘no 3’, ‘brahms’의 세 키워드가 *Romantic organ music Vol. II*라는 앨범에 여러 곡명에 걸쳐 포함되어 있으나, 수록된 곡 전체를 하나의 검색대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따라서 검색요구와는 거리가 먼 검색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예 1) *Romantic organ music Vol. II*  
 (Compact disc자료, 총 10곡 수록)  
 Allegro from Symphony no. 6, op. 42  
 /Widor (8:43)  
 Chorale prelude, Herzlich tut mich verlangen  
 /Brahms (1:59)  
 Hymn d'action de Grace, Te Deum, op. 5, no. 3

표 1 부분 표제어 검색 (Symphony no. 3 in F major, op. 90 /Brahms)

검색어 \ 학교	E 대학 (적합자료/검색자료)	H 대학 (적합자료/검색자료)	Y 대학 (적합자료/검색자료)
① symphony no 3	결과없음	9건/24건	6건/36건
② symphony f major	결과없음	4건/8건	4건/14건
③ symphony op 90	1건/1건	6건/6건	6건/6건
④ no 3 f major	결과없음	6건/30건	5건/70건
⑤ no 3 op 90	결과없음	8건/8건	8건/9건

주 1) 모든 검색어들은 Brahms와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Langlais (5:32)

예 2의 경우는 예 1의 경우와 비슷하나 no 다음의 숫자가 인식되지 않아서 'no 3'가 아닌 자료가 검색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음악자료에 있어서 알파벳 약어와 숫자에 관한 색인기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예 2) *The heart of the symphony*  
 (sound disc자료, 8곡의 교향곡수록)  
 Symphony no. 5 /Beethoven  
 "Unfinished" symphony /Schubert  
 Symphony no. 4 /Tchaikovsky  
 Symphony no. 5 /Dvorak  
 Symphony no. 4 /Brahms  
 Symphony in D minor /Franck  
 Symphony no. 5 /Tchaikovsky  
 Scheherazade /Rimsky-Korsakoff

한편 각종 음악기호마다 다른 색인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1의 ④와 ⑤는 각각 작품의 일련번호와 조성, 작품번호를 표현하는 알파벳 약어와 숫자를 검색어로 사용한 경우이다. 그러나 각 대학의 검색결과를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f major'를 검색어로 사용한 ④의 경우, 'op 90'을 사용한 ⑤의 경우에 비해 정확률이 낮았다. 이는 검색

어 'symphony f major'를 사용한 ②의 경우가 'symphony no 3'을 검색어로 사용한 ①에 비해 정확률이 낮은 것과는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검색어 'f major' 즉 '조성'을 색인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op'가 포함된 ③과 ⑤는 정확률이 높게 나타나, 음악기호를 색인어로 추출하는 방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곡명을 부분문자열별로 조합하여 검색한 결과는 정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이 실험에서는 임의로 곡명의 부분 요소들을 두 가지씩만 선택하여 검색하였지만, 실제 검색에 있어서는 이용자에 따라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

2) 별칭곡명

음악자료의 검색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음악자료의 곡명이 원래의 이름 이외에 후세에 붙여진 별칭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원래의 곡명보다 별칭이 더 유명한 것도 있으며, 이용자들은 원래의 곡명과 별칭곡명의 차이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비교적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Air on the G String*)는 『관현악 모음곡 3번 라장조 작품번호 1068』(*Suite no.3 in D major BWV 1068*)이 그 원제목이다. 19세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빌 헬미'가 독주 바이올린이 G선만으로 연주하도록 편곡한 것에 유래하여, 원곡과는 관계없는 별칭이 붙여지게 되었지만, 현재 『관현악 모음곡 3번

표 2 별칭곡명의 검색 (*Air on the G String /Bach*)

검색어 \ 학교	E 대학 (적합자료/검색자료)	H 대학 (적합자료/검색자료)	Y 대학 (적합자료/검색자료)
① suite no 3 D major	결과없음	3건/8건	10건/31건
② orchestral suite no 3 D major	결과없음	1건/2건	3건/3건
③ air G string	결과없음	결과없음	8건/8건
④ air string	1건	결과없음	7건/8건
⑤ air string (bach 없이 검색)	1건	2건/4건	6건/11건

주 1) 모든 검색어들은 Bach와 조합하여 검색하였으며, 검색의 복잡성을 없애고 검색의 편의를 위해, 작품번호 BWV1068은 검색어로 사용하지 않았다.

주 2) 보통 G선상의 아리아는 air on the G string , air for the G string 등으로 표기하기에 검색어를 air G string으로 하였다.

』이란 제목보다 더욱 친근하고 유명하다. 이 곡은 클래식 음악 중에서 비교적 일반인에게 유명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별칭을 검색어로 사용하면 원제를 사용한 것 보다 검색결과가 낮게 나온다.

표 2는 『G선상의 아리아』를 별칭과 원래의 곡명으로 검색한 결과이다.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작곡자를 기본 검색어로 두고 실험하여 보았다. ①의 'suite no 3 D major'는 원제목에 해당하고, ③의 'air G string'이 별칭곡명에 해당되는 검색어이다. ②는 모음곡을 지칭할 때 간혹 'orchestral suite'라고도 표기하기에 사용한 것이며, ④는 ③과 비교하여 'G'라는 철자가 검색결과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검색하였다. ⑤는 H 대학과 E 대학의 검색결과가 좋지 않아, 저자를 제외하고 검색한 결과이다.

이 검색 실험을 통해, 검색한 곡명이 별칭으로 더 유명한 곡이지만, 실제 검색결과는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E 대학과 H 대학의 경우, 별칭곡명으로 검색한 ③에서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재현율이 낮게 나타났다. H 대학은 ③과 ④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가 ⑤에 나타났는데, 이는 저자명 필드에 작곡자 Bach가 아닌 연주자가 기입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E 대학은 '부분문자열'의 문제로 인해 ①, ②, ③의 경우 모두 검색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교적 재현율이 높은 Y 대학의 결과를 보면, ③의 검색어는 관사와 전치사를 제외한 핵심단어만으로 검색하였지만 ①에 비해 재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2에서 다섯 개의 검색어는 모두 같은 곡에 해당하는 검색어이지만 원제명과 별칭간의 검색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별칭곡명에 의한 검색시 재현율이 낮은 것은 가장 뚜렷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번역곡명

클래식 음악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표제는 외국어로 되어있다. 그러나 일반이용자는 표제면에 나타난 원제뿐만 아니라 한글 번역어도 검색어로 사용한다. 즉,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Beethoven)을 탐색하고자 할 때, 악보 또는 오디오자료 표지에 Symphony no. 5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교향곡 5번』이라는 곡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도서 검색과 다르다.

표 3 에서 한글 검색어는 다른 검색어에 비해 검색된 자료수가 매우 적게 나왔다. 여기에 한글 번역어의 다양성(음, 뜻)까지 생각한다면 번역어에 관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예: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 부란델부르크, 브란덴부르크.....).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클래식 곡명을 기억하거나 검색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한글곡명이며 한글곡명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음악자료의 표제는 자료에 명시된 외국어곡명 뿐만 아니라 한글곡명을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한글곡명으로 된 자료 역시 원래의 외국어곡명을 접근점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실제 자료에 나와있는 단일 언어의 표제만으로는 검색효율을 높일 수 없을 것이다.

3.2 연주수단

음악자료는 이용자가 음악을 듣고 싶을 때뿐만 아니라 연주를 위해서도 검색하게 된다. 이 때 해당 자료가 어떤 악기를 위한 자료인가는 중요한 검색목적이 될 수 있다. 표제에 악기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음악자료들은 당연히 악기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검색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표제에 포함되어 있는 악기

표 3 번역 곡명의 검색 (Brandenburg Concerto /Bach)

검색어 \ 학교	E 대학 (적합자료/검색자료)	H 대학 (적합자료/검색자료)	Y 대학 (적합자료/검색자료)
brandenburg concerto	26건/26건	27건/27건	29건/29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결과없음	1건/1건	2건/2건
brandenburgische konzerte	3건/3건	22건/22건	18건/18건

명만 부출되므로, 악기명이 곡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곡이 어떤 악기로 연주되는 곡인지 검색할 방법이 없다. 독주곡이나, 교향곡, 협주곡, 앙상블, 실내악 등 연주방법과 규모는 다양하지만, 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악기가 있는 곡을 찾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앙상블 곡은 표제면에 현악 4중주, 피아노트리오와 같이 출현하는 악기를 간접적으로 명시해 주고 있지만, 현악 4중주가 언제나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 앙상블에 대한 악기표시는 표제면에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곡명에 악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곡은 같은 곡이더라도 다양한 악기로 연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악기에 대한 부출이 필요하다. 한 예로 Y 대학 도서관에서 『시바의 여왕의 도착』(*The Arrival of the Queen of Sheba*)에 관한 자료를 검색했을 때 결과는 현악으로 연주된 CD자료와 관악을 위한 악보가 검색되었다. 이 곡은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결과를 통해 원하는 악기로 연주된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었지만, 수백 건의 검색결과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악기로 연주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악기명을 접근점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교향곡이나 협주곡과 같은 합주곡은 곡이 크고, 다수의 악기가 출현하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하나 기술해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같이 거의 모든 교향곡에 출현하는 악기들은 굳이 기술하지 않아도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호른, 바순, 하프, 첼발로 등과 같은 악기는 아무리 대형 곡이라 해도 곡에 따라 출현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악기에 대한 접근점 마련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악기군으로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악기명 '하프'를 검색하면 현악기로 연결하여 해당 악기가 연주된 교향곡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3.3 다양한 인명정보

음악자료는 창작에 참여한 다양한 역할의 저자들이 있다. 우선, 베토벤, 바흐와 같은 작곡자와 라벨, 부조

니 등의 편곡자, 그 외에 작사자, 그리고 녹음자료라면 연주자까지 해당되며, 녹음자료가 오페라나 뮤지컬의 실황 자료라면 여기에 참여한 스태프 등이 저자에 포함된다. 각각의 책임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중요한 접근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저자의 접근점은 전술한 표제의 번역어 문제와 유사하게 각국의 문자로 표현된 저자명의 접근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 3.4 연주장소

유명한 연주홀은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수준 높은 음향시설 등에 힘입어 그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연주자들과 관객들의 인지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실황 녹음자료에 있어서 연주장소가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밀라노의 '라스칼라극장'에서 공연된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La traviata*) 공연실황 녹음자료를 이용자가 구한다고 할 때, 이용자가 느끼는 중요도는 장소가 더 높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라트라비아타』가 공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주장소도 접근점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3.5 가사

클래식 음악에도 가사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음악자료에서 가사는 문자정보로써 곡의 내용 및 주제를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제 검색시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

가사는 키워드를 추출하거나 구절단위로 색인함으로써 全文데이터 검색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가사의 검색이 가능하게 되면 주제검색의 불완전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3.6 수상내역

우리가 문학작품을 볼 때 어떤 작품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 책의 가치는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음악자료에 있어서 수상정보는 특히 음반에 있어서 '디아과중', '그라모폰'과 같이 저명한 음악전문지에서 매년 수여하는 상에 대한 인지도와 가치는 이용자의 작품 선택에 어느 정도 비중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상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소수의 음악전문

가에게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도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이러한 수상정보는 음악감상을 위한 작품선정에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음반에 관한 수상정보는 출시된 이후에 상을 수상하는 것이기에 사서의 지속적인 목록추가 작업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4 개선방안

음악자료의 접근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해결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표제의 부분문자열을 조합하여 검색어로 사용하였을 때 낮은 정확률이 나타나는 문제는, 키워드를 지정할 때 문제가 되는 작품번호와 조성에 관한 개념을 나타낸 키워드를 색인하여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원곡명에 비해 재현율이 낮게 나타난 별칭곡명에 대한 문제는 대등서명에 별칭곡명을 기술하고, 별칭이 많을 경우는 주기에 기술하는 방법과 곡명에 관한 전거제어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번역곡명에 관한 문제 역시 대등서명 및 별서명의 처리규칙에 준하거나 곡명에 관한 전거제어 기법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셋째, 표제면에 나타나지 않는 곡의 연주수단에 대한 문제는, 악기에 대한 주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술해 주면 악기에 대한 접근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음악자료의 표제면에 악기명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목록작성자가 자료에서 악기정보를 발견하여 기술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넷째, 다양한 역할의 저자들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기술규칙에 따라 저자들의 역할별로 기술해주면 될 것이다. 즉,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은 저자표시에, 연주자, 연주단체, 지휘자는 연주자 주기에, 스태프는 제작진 주기에 기술한 후 접근점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김남석, 조도희 2000, 88). 그리고, 한 사람이 작곡과 편곡, 연주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역할어를 반드시 표기해주어야 하며, 식별기호에 좀더 다양성을 부여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가사에 대한 접근 방안은 키워드 검색기법

에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全文검색기법을 적용한다던가, 대개가 운문 형식으로 되어있는 가사를 소절별로 또는 마디별로 접근하도록 하는 키워드 색인을 적용해볼 수 있다.

여섯째, 수상정보는 '수상주기'에, 연주장소는 '촬영/녹음일시와 장소 주기'에 기술하고 접근점을 만든다. 그리고, 해당 주기에는 연주홀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연주홀이 있는 지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혼돈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표제뿐만 아니라 가사나, 저자명, 연주수단에 있어서도 번역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전거통제를 하거나, 목록기술에 있어 번역관련 사항을 기술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각 대학도서관 목록시스템에 나타난 음악자료 검색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음악자료에 대한 검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악자료의 서지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한 목록기술 및 색인 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자 연구를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검색어 사용 행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검색어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접근점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현재 도서관 검색시스템에 나타난 음악자료 검색상의 문제점들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남석, 조도희. 2000. 『비도서자료의 조직이론』. 대구 : 계명대학교출판부.
- Redfern, Brian. 1979. *Organising Music in Libraries*. Vol.2. London : Clive Bingley.
- Smiraglia, Richard P. 1989. *Music Cataloging: The Bibliographic Control of Printed and Recorded Music in Libraries*. Englewood,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